

‘지방생산모형’의 도출을 위한 시론적 연구

— 타자화논리와 내부식민지론의 통합을 중심으로 —

An Introductory Study on 'Othering' as an Administrative
-Philosophical Ground for the Critical Reading of Locality

임 의 영*
Lim, Euy-Young

< 목 차 >

- I. 서 론
- II. 타자화의 논리
- III. 타자화의 공간적 조건: 중앙-지방의 중심부-주변부 권력구조화
- IV. 지방생산 모형: 타자화와 중심부-주변부 권력관계 구조화 논리의 통합
- V. 지방생산모형에 근거한 한국사회의 지방읽기 가능성 탐색
- VI. 결 론

이 글은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들 가운데 하나인 지방의 위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 지방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의 위기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이 구성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방의 위기를 해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지방생산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지방생산모형은 지방은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생산된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열등한 존재로서 지방이 생산되는 원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물질적 조건과 정신적 조건의 연계성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열등한 존재로 지방이 생산되는 물질적 조건을 밝히기 위해 내부식민지론을, 정신적 조건을 밝히기 위해 타자화이론을 활용하였다. 두 이론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지방생산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이 한국사회의 지방을 이해하는데 활용될 수

논문 접수일: 2006년 9월 25일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주제어: 지방, 타자화, 내부식민지, 권력

One of the critical problems of Korean society is the crisis of province. In the discourses of Local Public Administration, many alternatives that might solve some problems of province have been suggested. But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can explain the crisis of province has not been posited satisfactorily. Provinciality is not given naturally, but made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enter and the province. In order to illuminate this process, the production model of provinciality is theorized in this study. This model has two theoretical origins, which are othering theory in philosophy and internal colonialism theory in political economy. With the production model of provinciality, we can explicate a mechanism that the province is created as an inferior being. This model will be available for illuminating some reasons which the crisis of province is happened in Korea

□ key words: province, othering, internal colonialism, power

I. 서론

한국사회는 중앙의 과잉집중과 지방의 피폐화를 특징으로 한다. 인구라는 하나의 지표만 보아도 수도권 인구는 이미 전체인구의 50퍼센트를 넘어섰고, 지방 인구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강력한 지방화 정책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인구감소 추세는 제어되지 않고 있다. 대학선택이 서울과의 거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화되어버린 대학입시에서 지방의 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서울에서 이동거리나 이동시간에 비례해서 입학생들의 성적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은 성공의 상징이, 지방은 실패의 상징이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중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격차구조를 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한국사회는 지리정치학적으로 두 개의 국민, 즉 ‘중앙국민’과 ‘지방국민’으로 분화되고 있으며, 중앙의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한 치열함이 더할수록 지방은 더욱더 피폐화되고 말 것이다.

위기적 상황은 철학적 사유를 자극한다. 한국의 지방이 처해있는 위기는 지방에 대한 본질적인 사유, 혹은 철학적인 사유를 자극한다. 사실 행정학 분야에서 지방자치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지방의 문제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이종수, 2002; 이병렬·박기관, 2002; 김상구, 2005). 게다가 지방은 일정한 구역을 의미하는 개체적 개념인 ‘지역’과는 달리, 중앙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대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을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거의 찾아볼 수 없다(김광익, 1996; 김천영, 2006).¹⁾ 따라서 지방을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본질적으로 사유하기 위한 논의는 기존의 지방담론을 보다 심화하는데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예에서 우리는 “지방은 본래 열등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왜 지방은 본래 열등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된다. 지방은 지리적으로 단순히 ‘거기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간은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장소가 된다. 인간이 사는 곳은 이미 의미가 부여된 장소이다. 의미는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맥락에 의해서 구성된다. 공간은 정치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다(Lefebvre, 1991). 지방은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이미지화된 장소가 된다. 이러한 현상은 ‘타자화(othering)’의 철학적 논리에 의해 해명 가능하다. 타자화는 어떤 존재가 다르다는 이유로 열등한 존재로 규정되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타자화는 우등한 것에 의한 열등한 것의 지배라는 권력관계를 내포한다. 이러한 타자화는 단순히 다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성이나 격차가 정당화되는 과정에서 다름이 인식되고, 그러한 다름이 열등한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문화적/사회심리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왜곡을 핵심으로 하는 타자화는 열등한 지방의 사회경제적 생산과 재생산 메커니즘을 계기로 해서 발생한다. 일국 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지방이 열등한 곳으로 생산되는 메커니즘은 Hechter의 내부식민지론(internal colonialism)에 의해 설명가능하다. 내부식민지론은 ‘중앙과 지방의 공간화’가 ‘중심부-주변부 권력관계’로 구조화되는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유의미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보면, “지방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지방은 무엇으로,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찾기 위해 타자화의 논리와 내부식민지론에 의존하고자 한다. 지방의 생산을 해석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보다 현실에 가깝게 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타자화 이론과 내부식민지론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자 한다. 타자화와 내부식민지론은 열등한 존재로 생산된 지방의 정신적 표

1) 물론 정부간관계론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정부간관계론은 중앙과 지방을 단지 정부간의 관계로 제한해서 본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이종열·이재호, 2002; Wright, 1988).

현과 물질적 표현이다. 이 글은 이러한 관계를 전제로 양자의 종합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 동안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은 시론적인 성격을 가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적 도구가 한국사회의 지방을 읽는데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타자화의 논리

타자화의 논리는 개인, 집단, 지역간의 관계가 지배-예속의 권력관계로 구조화되는 과정에서 예속 단위의 이미지가 사회문화적/사회심리적으로 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되는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장에서는 우선 이러한 타자화의 논리가 철학적으로 어떻게 이론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단위들 간의 권력관계가 분명하게 구조화된 식민지상황에 대한 Fanon의 논의에 근거해서 단선적 타자화 논리를 수정하여, ‘이중적 타자화’의 메커니즘을 이론화하고자 한다.

1. 타자화의 철학적 논거: 헤겔주의 대 反헤겔주의

‘타자’나 ‘타자화’는 철학적 전통 속에서 그렇게 익숙한 개념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서양철학이 주체(subject)나 자아(I)를 중심에 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체’ 혹은 ‘다른 자아’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타자는 주체나 자아를 ‘위해’ 존재하고 있을 따름이다. Decartes가 발견한 ‘사유하는 자아’는 바로 근대적 주체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가 Hegel에 의해 정신의 형식으로 절대화된다. 타자화의 논리는 Hegel이 완성한 절대정신의 변증법에 대한 입장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Hegel이 설명하고 있는 절대정신의 자기전개과정에서 타자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서 Hegel의 정신현상학에 대한 창조적 주석을 제시하였으며, 프랑스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에 많은 영향을 미친 Kojève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Hegel의 ‘단힌’ 변증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논의 속에서 타자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Hegel의 타자 개념을 살펴보자. 정신이 가장 낮은 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자기 자신으로 복귀하는 변증법적인 운동과정을 해명한 Hegel(1983)의 《정신현상학 Phenomenology of the Spirit》에서 ‘타자(the other)’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정신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외화(外化)’한다. 외화는 말 그대로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는 경우, 혹은 머리 속에 있던 이미지를 종이 위에 그리는 경우와 같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그런 다음, 정신은 외화된 것을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것을 ‘대상화’라 한다. 자신이 그린 그림을 바라보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정신은 이렇게 대상화된 자신을 객관적인 실체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를 ‘객관화’라 한다. 나의 그림은 나의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어떤 객체임을 인식하는 것이다(그것은 단순히 나의 표현이 아니라 시나 그림 혹은 음악이라는 객관적 실체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정신의 객관화된 대상은 정신의 ‘부정’으로서 정신과 대립한다. 나를 표현한 그림이 나의 밖에 있으며(부정), 나와 마주하고 있다(대립). 이렇게 대립하는 대상을 통해서 정신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를 정신의 ‘부정의 부정’, 즉 자기로의 복귀, 또는 동일화(identification)라 한다. 나는 나를 표현한 그림 속에서 나를 보게 된다. 외화, 대상화, 객관화, 동일화로 이어지는 변증법적인 정신의 자기복귀운동은 폐쇄된 원환운동이 아니라 나선형의 상승운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신의 완전한 자기화 혹은 자기실현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Hegel에게 있어서 타자는 정신이 외화된 대상 혹은 객관화된 정신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정신으로 ‘복귀’해야 하는 계기적 존재이다. 타자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타자는 절대성을 향해서 자신을 버려야 하는 존재이다. Hegel에게 있어서 타자화는 정신의 자기부정과정, 외화, 대상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타자화된 대상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복귀한다. Hegel에 의하면, 그 필연성을 담보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이성의 간지’이다.

Hegel의 《정신현상학》 전반에 걸쳐 전제된 타자화 보다는, 자기의식장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내포된 타자화의 논리는 역설적이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대한 Kojève(1981)의 해석은 그 역설을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동물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인정(recognition)을 통해서 자기존재성을 확인한다. 타자의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자기동일성을 갖게 된다. 진정한 인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인정을 받는 사람과 인정을 하는 사람간의 ‘동등성’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다. 그에 반해 어떤 사람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 요구에 복종을 하게 된다. 인정투쟁에서 승리한 전자는 주인이 되며, 패배한 후자는 노예가 된다. 이로써 인정의 조건으로서 동등성은 파괴된다. 여기에서 역설이 발생한다. 주인은 자기가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노예(말하는 동물 혹은 살아있는 도구)를 통해서 자신이 인간임을 인정받고자 한다. 그러나 비인간은 인간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주인은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는데 실패한다. 이렇게 해서 주인은 비인간(진정한 노예)이 되고 만다. 이에 반해 노예는 주인에게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는데 실패하지만,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식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노예는

물리적인 노동을 통한 가공과정에서 자연에 자신의 정신을 투사하고, 그 노동의 결과물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 속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노예는 진정한 자기의식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인간(진정한 주인)이 된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의하면, 타자화는 인간의 비인간화 혹은 노예화를 의미하며, 타자화의 대립개념은 인간화이다. 따라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는 타자화의 두 계기를 볼 수 있다. 하나는 형식적 주인에 의한 형식적 노예의 타자화이며, 다른 하나는 형식적 주인의 자기 타자화이다.

반헤겔주의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은 Hegel의 복귀나 동일화를 전제로 하는 타자화의 논리에 비판의 초점을 맞춘다. 반헤겔주의자들은 정신의 자기복귀를 인도하는 이성의 간지를 ‘이성의 권력’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복귀나 동일화가 필연적 과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복귀의 거부는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 동일화의 과정은 정신의 전체성 혹은 총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전체 체계(whole system)는 선이 되고, 체계의 거부는 악이 된다.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정신(신)의 피조물인 타자(인간)는 회개하고 다시 정신(신)에게 귀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포스트모더니즘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을 이성 안에 포섭하려는 권력화된 이성에 대해 반감을 공유한다. 즉, 반이성주의적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이성, 정신, 자아, 주체 등등의 절대성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적 입장은 상대화되어버린 타자에게로 눈을 돌리게 한다. 타자가 절대적인 주체(주인)에 의해 무엇인가 부족한 존재(노예)로 격하되고 말았다는 인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Kojève의 지적처럼, 결과적으로 주체(주인)가 부족한 존재(노예)가 되고 만다는 논리를 제공한다. 따라서 타자는 주체에게로 복귀해야 할 필요가 없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하나의 개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좀더 극단적으로는 오히려 나의 인간성을 입증하는 타자는 윤리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까지 전개된다.

타자의 윤리학을 전개하는 Levinas의 경우를 보자(김연숙, 2001; 강영안, 2005). 그에 의하면, 타자는 자아의 부정이면서 자아와 대립하는 상대적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 즉, 타자는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나다(I am for I am)”라는 주체의 절대성을 상징하는 야훼(여호와)라는 기독교의 신 개념은 “타자는 타자이기 때문에 타자이다(The other is for the other is)”라는 명제로 전도된다. 타자는 나에게 의해 전유될(복귀해야 하는 혹은 동일화될) 상대적 존재가 아니다. 타자는 나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나와 ‘다른’ 존재일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주체로서의 나는 선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서로를 자기방식으로 전유하려는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타자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데서 실현된다. 타자의 윤리학이 지향하는 것은 타자화에 의

해 소외된 타자의 존재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다.²⁾

다른 반헤겔주의적 입장은 타자성(otherness)을 ‘전체 안에서의 결핍’으로 인식하는 헤겔주의적 입장에 비판적이다. 존재가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를 완전성 혹은 동일성이라 한다면, 타자는 그러한 조건들 가운데 일부 혹은 상당부분을 결여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타자화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결여된 존재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Foucault에 의하면, 이러한 타자화는 담론(discourse)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정신병자는 정신병에 관한 의학담론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정신병에 대한 의학적 기준이 제공됨으로써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기준에 근거해서 비정상적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수용된다. 또한 Deleuze에 의하면, 타자화는 ‘차이의 정치학’으로 해석된다. 차이는 보편적인 것의 특별한 경우나 예로 간주된 단수(홍길동은 ‘인간’이다)와 그 단수성(singularity) 속에서 간주된 단수(홍길동은 홍길동이기 때문에 홍길동이다.) 사이에서 생겨난다. 차이는 차이 그 자체이다. 이러한 차이의 논리는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인류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한 편으로는 모델의 복제품으로만 만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만장일치를 공포할 때면 변함없이 배제되는 기괴한 경우들의 ‘소수’--흔히 말하듯이 특별한 경우들(공통되지 않은 이라는 의미에서)--로 구분됨을 의미한다(Descombes, 1990: 196).”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타자화의 논리는 공통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분류·배제하는 것이다. 타자화는 배제와 동일화를 계기로 하며, 배제를 통해서 동일성이 확보된다. 가령 백인은 피부색을 기준으로 유색인을 자신들과 공통점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배제하고(타자화), 동시에 그렇게 배제된 대상을 근거로 자기동일성을 확증한다(동일화).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자기의 기원은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있는 것이다. 나는 백인이기 때문에 백인인 것이 아니라, 나는 유색인이 아니기 때문에 백인이라는 것이다. Derrida의 지적처럼, “동일자는 타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만 동일자이다(Descombes, 1990: 183에서 재인용).” 이렇게 해서 Kojève가 해석한 Hegel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재생된다. 자기(백인)는 노예(의존체)가 되며, 타자(유색인)는 주인(기원)이 된다.

타자화에 대한 헤겔주의적 입장과 반헤겔주의적 입장의 차이는 타자를 전체(공통점을 가

2) 우리가 주체라고 번역하는 독일어 ‘das Subject’나 영어의 ‘subject’, 프랑스어의 ‘le sujet’는 라틴어 subjectum에서 유래한다. 이 말은 ‘무엇에 종속된 것’ ‘어떤 다른 것에 깔려있는 것’을 의미한다(강영안, 2005: 54). 어원에 따르면, 주체는 다른 무엇인가 종속된 것을 의미한다. 주체는 다른 것들(술어)에 의해서 설명된다. 따라서 주체의 근원은 다른 것, 타자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타자는 주체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Levinas는 이러한 차원에서 타자를 위한 삶이 윤리적으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강조한다.

지고 있는 다수로서의 보편성)에 동일화 혹은 동화(assimilation)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거나 아니면 다른 하나의 주체로 보거나 있다. 즉, 양자의 입장차이는 차이의 존재론적 의미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다. 기본적으로 반헤겔주의의 입장은 필연성을 명분으로 하는 폭력적인 동(일)화는 타자화의 전형으로서 극복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이중적 타자화(double othering)’: Fanon의 해석을 통한 단선적 타자화 논리의 수정

타자화는 지배와 피지배의 권력관계가 일반화된 현실 사회에서는 일상화된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극단적인 방식, 즉 폭력적으로 일상화된 ‘식민지적 상황(colonial situation)’에서 타자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Fanon의 해석은 타자화 논리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Fanon의 《검은피부, 하얀가면 Black Skin, White Masks(1998)》은 식민지 상황에서 타자화의 경험, 특히 이중적으로 진행되는 타자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타자화에 대한 Fanon의 해석(1998: 253-257)은 Lacan의 거울상 단계(mirror-stage)론에 의존한다. Lacan(1949)에 의하면, 유아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자아가 형성된다. 정체성은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상상적 동일화’를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유아는 자신을 파편적으로만 경험한다. 유아는 손과 다리가 몸에 연결되었다고 경험하기보다는 따로따로 떨어져있는 것으로 경험한다. 파편적으로만 자신의 신체를 경험한 유아는 거울에 비친 통합된 신체의 이미지에 매료되어 그것에 몰입한다. 유아는 거울에 비친 대상, 즉 타자에 몰입되어 자신을 망각한다. 타자를 자기로 오인(mecooissance)한다. Lacan(1949: 6)은 ‘의식의 자기충족성은 자아형성시 필연적으로 개입되는 오인으로부터 생겨난 환상’으로서, ‘자아가 오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상상적 동일시로 인해 인식되지 않았던 차이가 인식되는 경우, 유아는 파편화된 신체를 경험하게 된다. 유아가 거울의 이미지를 자기로 오인하여 계속 거울에 자신의 몸을 들이대어도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험을 통해 신체의 파편화, 즉 거울의 이미지와 자기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 혹은 거울의 이미지가 내가 아니라 타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유아는 자신의 주체됨을 배제하는 타자의 다름, 그것의 낯설음에 굉장한 공포를 느낀다(Widmer, 1998: 46). 따라서 동일화하려는 구체적인 신체적 노력이 지속되다가 일정 순간이 지나면 거울을 거칠게 때리는 행동으로 발전한다. 즉, 공포는 공격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반응이 바로 타자에 대한 ‘공격성’이다. 도저히 동일화될 수 없는 타자에 대한 공격성이다. Fanon은 이러한 정신분석적 논의를

인종간의 관계에 대입시킨다. 백인은 흑인을 타자화한다. 백인은 흑인을 자신과 도저히 동일화할 수 없는 타자로 규정한다. 동일화되지 않는 낯선 타자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백인은 타자인 흑인에 대해 공격성을 드러낸다. 문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데 있다. 흑인 역시 백인중심의 사회적 편견이 용해되어 있는 문화적 장치들에 의해 자신을 백인으로 오인한다. 피부는 검은 색인데, 자신을 백인과 동일시한다. 백인의 가면을 쓴다. Spike Lee 감독의 《말콤 엑스 Malcolm X(1992)》에서 우리는 하얀 양복과 백구두를 신고 백인처럼 걸어가려고 애쓰는 젊은 말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하얀 가면을 쓴 검은 피부의 사람들 역시 흑인을 혐오한다.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얀 가면을 쓴 검은 피부의 사람들은 백인사회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인식이 오인임을 알게 된다. 즉, 하얀 가면이 여지없이 벗겨진다. Althusser의 호명이론에 의하면, 주체는 이데올로기적 호명에 의해 형성된다(박찬부, 2001). 것처럼, 하얀 가면의 흑인은 “이봐! 검둥이!”라는 주위의 놀림에서 혹은 “검둥이에겐 음식을 팔지 않아!”라는 말에서 흑인은 검둥이이고, 검둥이는 더럽고 재수 없으며 인간이 아니라는 이데올로기적 호명을 경험하게 된다. 몸은 단순히 몸이 아니라 하나의 기호가 된다. 그 기호에 의해 그는 타자로 규정된다.

Fanon의 해석에 의하면, 흑인은 백인 지배적인 식민지 상황에서 악과 죄의 상징으로 규정됨으로써 타자화된다. 또한 흑인은 백인의 기준을 내면화하도록 사회화됨으로써 백인이 흑인을 혐오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이 흑인 자신에 의한 타자화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타자화는 이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식민지적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관찰되는 이러한 이중적 타자화—A에 의한 B의 타자화, 자신을 A로 오인하는 B에 의한 B의 타자화—는 지배와 피지배의 실존조건이 일상화된 상황에서도 재현된다. 가령 남성과 여성, 서양과 동양, 백인과 흑인,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비장애인과 장애인 등등의 관계에서 관찰될 수 있는 ‘차이’들이 사회경제적 조건과 이론적인 담론들—과학일반, 인류학, 우생학, 의학, 종교학 등등—에 의해서 정상과 비정상의 우열관계로 변질되고, 궁극적으로는 상위집단이 열위집단을 지배하는 권력관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열위집단의 구성원들은 상위집단에 의해 타자화되고, 열위집단의 구성원들은 상위집단의 논리를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봄으로써 자기 자신을 타자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Ⅲ. 타자화의 공간적 조건: 중앙-지방의 중심부-주변부 권력구조화

타자화의 실존적 조건으로서 식민지적 상황은 국가간의 공간적 관계가 중심부(core)와 주변부(periphery)의 권력관계로 구조화된 극단적인 경우를 보여준다. 식민지적 상황은 '타자화의 정치경제학적 조건'이다. 그런데 이러한 식민지적 상황은 일국적 차원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 일국 내에서의 공간적 배치가 국가간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심부와 주변부의 권력관계로 구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³⁾ 만약 이러한 구조가 고착된다면, 사회문화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주변부의 타자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Hechter(1975/1999)는 국가간 식민지적 상황이 일국적 차원에서 재현되는 상황을 내부식민지론으로 이론화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일국 차원에서 중심부-주변부의 공간적 권력관계의 구조화과정을 논증한 내부식민지론을 지구화(globalization)시대의 성격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타자화가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1. 중심부-주변부의 권력구조화: Hechter의 내부식민지론⁴⁾

3) 지방에 대한 어원적 의미를 추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지역을 의미하는 영어 region은 지배와 통치(to direct, rule)를 의미하는 라틴어 regere에서 생겨난 regio에서 유래하였다. regio는 군단관구(軍團管區)를 의미한다. 그리고 같은 뜻으로 영어에서 주(州)나 지방을 의미하는 province는 로마제국에 의해 '정복된 영토'를 의미하는 라틴어 provincia에서 유래하였다. 이것은 지방이라는 말이 군사적 지배, 즉 권력의 작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Lefebvre(1991)의 말대로 공간은 정치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다. 이러한 지방의 의미는 일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藤田弘夫(1995)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지방을 의미하는 말이 군사적 지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뜻으로 현(縣)이라 불려졌다는 것이다. 그곳에는 군대에서 파견된 군대가 상시 주둔해 있었으며, 수십 개의 현을 감독하던 사령관이 군수였고, 그 군사관구가 군(郡)이었다는 것이다. 郡과 軍은 같은 발음으로 상설의 주둔군을 의미하였다. 중앙의 도시는 지방을 도시의 치안을 유지하는 단위별로 재배치하였다. 따라서 군사적인 범위를 표시하는 호칭이 지방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어원적 의미에서 보면, 지방은 중심부로서의 중앙에 의해 군사적 지배가 이루어지는 주변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은 영어의 local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소(place)를 의미하는 라틴어 locus에서 유래한다. local은 지역이라는 개체적이고 중립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지방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http://www.etymonline.com/index.php?search=region&searchmode=none>

<http://www.etymonline.com/index.php?search=province&searchmode=none>

<http://www.etymonline.com/index.php?search=local&searchmode=none>

4) 이 글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부식민지론은 Hechter(1999: 30-34)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내부식민지론은 전파이론(diffusion theory)과 불균등발전론(uneven development theory)에 대한 비판적이며, 대안적인 모델이다. 전파이론에 의하면, 발전은 후진적이며 낡고 전통적인 지역에 근대적인 특성들을 확산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특히 기술과 자본의 확산을 통해서 후진지역은 필연적으로 전통적인 상태에서 근대적인 상태로 진화한다고 본다. 전파모델에서 발전을 정의하는 기준의 하나는 국민총생산고로 측정되는 국부의 수준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유동성의 정도, 중산층의 진보적 역할, 사회구조의 복잡성, 정치적·사회적 기능과 제도의 전문화 수준, 도시화, 민주화 등과 같은 근대성의 정도이다(Chilcote & Edelstein, 1980). 불균등발전모델에 의하면, 전파이론과 같은 맥락에서 한 분야 혹은 한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지면, 그 발전의 과실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이나 지역을 집중 지원하여 발전시킴으로써 다른 산업이나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전파이론이나 불균등발전론은 모든 사회에서 사회발전이 동일한 시계열적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회발전은 그 요인이 내생적인 것이냐 아니면 외생적인 것이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Hechter, 1999: 30). 가령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후발 자본주의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내생적인 국가발전의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선진 자본주의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생적인 요인이 사회발전에 작용하는 경우, 그 성격은 전혀 다르다. 일반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사회발전론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다.

식민지적 상황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인종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른 외국의 정복자들이 지배하는 상황이다. 정복자 집단은 원주민의 열등성과 스스로가 주장하는 자신들의 인종적, 종족적, 문화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지배를 정당화한다. 상이한 문화 간에 교류가 있게 되는데, 피지배 사회는 지배국을 위한 도구적 역할을 강제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식민지적 지배가 강화될수록 문화적 차원에서의 노동 분업이 정교화된다. 노동 분업은 수직적 계층성을 띠게 되는데, 문화적 ‘차이’가 권위배분의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지배국의 문화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높은 지위를 허용하고, 지배국의 문화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원주민들에게는 최하위의 지위만을 허용한다. 식민지적 상황에서 식민지의 역할은 도구적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식민지의 발전은 지배국의 발전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만을 갖는다. 식민경제는 주로 천연자원과 기초적인 상품의 생산에 특화된다. 도시화의 과정

Hechter 이전에 내부식민지에 대한 지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Lenin은 러시아에서 자본주의 발전에 관한 논의에서 내부식민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Gramsci는 이탈리아의 남북문제를 다루면서 남부지방을 착취당하는 식민지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종속이론가들이 종종 이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내부식민주의를 구체적으로 이론화한 사람은 Hechter이다.

을 보더라도, 내생적인 발전을 이룬 국가들의 경우 도시는 국가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성장한다. 그러나 식민지에서는 식민지배 및 교류 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도시가 형성되고 성장한다. 따라서 도시들은 주로 지배국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해안가에 위치한다. 철도와 같은 수송체계의 경우도 식민지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에서 지배국으로의 상품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성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식민지적 상황에서 다른 문화와의 교류 중대가 식민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교류의 성과는 기껏해야 Frank(1967; 1980)의 말대로 ‘저발전의 발전(the 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에 불과할 뿐이다.

Hechter(1999: 32)에 의하면, 식민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이 일국적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국 내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중심부와 주변부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주변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업과 교류는 중심부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독점되고 지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 및 신용체계 역시 중심부의 구성원들에 의해 독점되고, 은행가, 관리자, 경영인들은 중심부의 구성원들에서 충원된다. 주변부의 경제발전은 중심부의 발전을 위한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주변부 경제는 외부시장에 대해 의존적이다. 그러다 보니, 주변부의 경제는 단일품종의 농수산물이나 천연자원의 생산에 특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주변부 노동자들의 이동은 주로 주변부 밖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주변부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노동자들은 주변부에서 중심부나 다른 주변부로 이동하게 된다. 주변부의 경제적 의존은 법적, 정치적, 군사적 수단에 의해 강화된다. 주변부는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공공서비스, 낮은 생활수준, 높은 좌절감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 또한 언어, 종교, 기타 문화를 근거로 하는 민족적 차별이 존재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경제적 차이는 그들의 문화적 차이와 인과적으로 관련이 있다.

Hechter에 의하면, 일국 내에서의 발전은 전파이론이나 불균등발전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필연적인 수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발전의 기회나 과실은 사회구조적 혹은 경제적 과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중심부와 주변부의 교류가 주변부의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더욱이 자원 분배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의 차이에 따라 발전의 정도는 달라진다. 중심부는 기득권을 바탕으로 정치적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배분의 우위를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시킬 것이고, 주변부는 상대적으로 자원배분의 기회와 과실을 향유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중심부와 주변부의 격차가 오히려 커지고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국가의 총체적인 발전이 어려운 이유는 중심부와 주변부가 통합되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심부와 주변부가 부정의하고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Hechter(1999: 34)는 주변부의 정치 전략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국가 발전은 자신에게 좀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자원배분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변집단의 정치권력(political power)을 강화시킴으로써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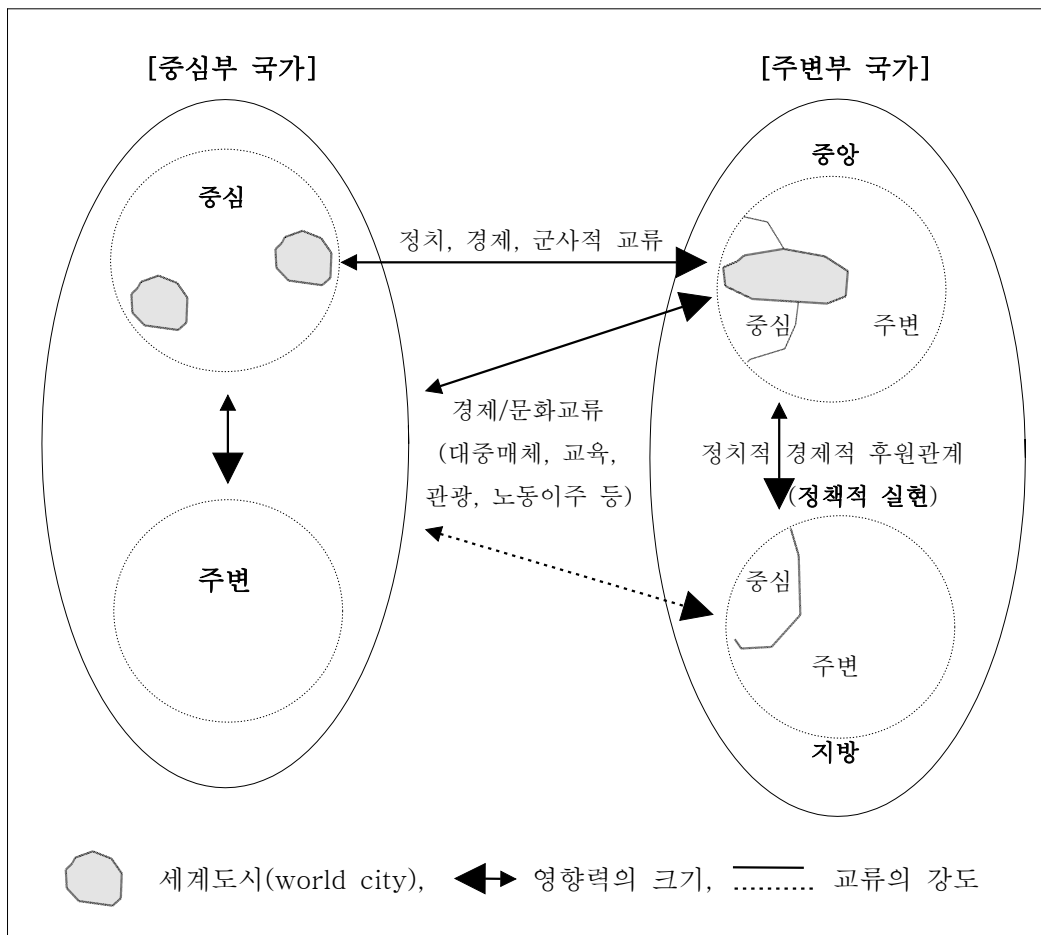
2. 일국적 차원의 중심부-주변부 권력구조화와 지구화의 관계: 내부식민지론의 수정

지금까지 살펴본 Hechter의 내부식민지론은 근대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전과이론이나 불균등발전론에 대한 비판적 대안이다. ‘식민적 상황’에서는 한 지역의 발전이 다른 지역에 전과되거나 다른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역간의 불균등성을 더욱 확대·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일국적 차원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이다. Hechter의 통찰력은 대단히 유의미하나, 시대적 변화와 함께 좀더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몰락 이후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확장, 수송기술 및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역간의 상호의존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객관적으로 지구의 공간적·시간적 마찰정도는 영을 향해 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 역시 세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사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경향성을 지구화라 부른다(Robertson, 1992). 물론 지구화의 중심에는 자본의 가치증식을 향한 욕망이 따리를 틀고 있다. 지구화는 신제국주의(new imperialism) 혹은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Harvey, 2005; Foster, 2003; Rose, 2003; Brewer, 1984; Magdof, 1982).

일국적 차원에서의 공간화는 지구적 차원의 공간화와 독립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 Wallerstein(2005)의 세계체제론에 의하면, 지구상에는 중심부 국가와 주변부 국가가 존재한다. 경제잉여는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흘러들어간다. 중심부는 주변부 국가들로부터 경제잉여의 흡수를 효율화하기 위한 공간의 재구조화를 유인한다. 그것은 정치적, 법적, 이데올로기적,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은 과거의 제국주의적 식민지 확보를 위한 경쟁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현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과거 식민주의와 달리 지배의 직접성이 간접성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Hechter는 일국 내의 중심부 집단이 정치권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집단들 간의 경제적 격차가 커진다고 분석한다. 세계체제의 상호의존성이 매우 강화된 사실을 고려한다면, 일국의 정치권력은, 특히 주변부 국가의 정치권력은 중심부국가들의 다양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주변부 국가는 신식민적 상황과 내부식민적 상황이 중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간은 사회와 무관하지 않다. 공간은 사회적인 것이다(Lefebvre, 1991). 일국적 차원에서 중심과 주변의 양극화는 공간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와 중첩된다. 중앙은 중심부이며, 지방은 주변부이다.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전진기지로서 재구조화된 ‘세계도시(world city)’의 경우를 통해 지구화가 일국의 중심-주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대부분의 세계도시는 중심부국가에 밀집해 있지만, 주변부 국가들에도 자본주의의 전략 거점으로 세계도시가 구축된다(Sassen, 2000). 그리고 제3세계 국가에서 세계도시의 성장은 해당국가의 공간구조의 성격 혹은 구획된 공간간의 역학관계에 변화를 일으킨다. 대도시 경제구조의 재구조화 경향을 보면(강현수, 1995; 강현수·최병두, 2003), 첫째, 기업의 본사나 사무기능, 금

<그림 1> 중심부-주변부 권력관계의 구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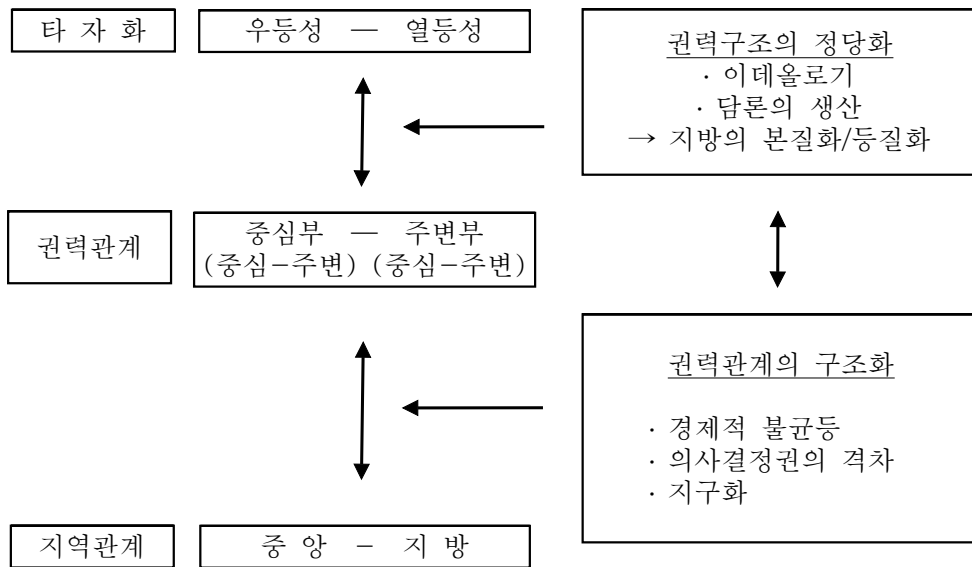
용기관, 이와 관계된 생산관련 서비스산업들이 기업 활동의 복합체를 형성하면서 대도시에 집중된다. 이들이 대도시에 집중되는 이유는 대도시가 대면접촉의 용이성과 발달된 통신하부 구조망으로 인해 이들 활동의 가장 중요한 입지요소인 정보접근성이 매우 우월하기 때문이다. 이들 세계도시의 특징적인 모습은 이들 도시경제의 대부분이 자국 내수경제보다 주로 세계경제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둘째, 전통적으로 대도시 경제의 중심을 이루던 대규모 제조업이 쇠퇴하거나 외부로 분산됨에 따라 대도시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하락한다. 셋째,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분산과는 반대로 특수 기술이나 전문영역을 가진 소규모 업체들이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영세소규모 제조업체들은 오히려 대도시에 집중하고 있다. 넷째, 대도시 경제의 전반적인 이중구조화 및 이와 맞물려 사회계층구조의 양극화가 발생한다. 대도시 내부의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공간적, 문화적, 정치적 양극화가 형성되면서 전체적으로 도시의 이중도시(dual city)화가 초래된다. 제 3세계 국가에서 세계도시는 마치 천막촌에 으리으리한 백화점이 한 채 서있는 것과 같은 이미지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세계도시가 성장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된다. 지방은 중앙을 위해 그리고 세계 중심부국가의 발전을 위해 도구적으로 구조화된다. 더불어 주변부 국가들은 세계군사전략 기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세계도시나 군사전략기지는 해당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공간을 구조화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일국(주변부)의 중앙과 지방이 중심과 주변의 권력관계로 구조화되는 과정에 대한 지구화의 효과는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중심과 주변의 공간적 권력관계는 마치 커다란 상자 속에 작은 상자가 반복적(recursive)으로 존재하는 방식을 취한다. 세계적 차원에서, 일국적 차원에서, 중앙의 차원에서, 지방의 차원에서 중심과 주변의 공간적 권력관계는 반복적으로 재현된다. 따라서 타자화의 논리는 각각의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다. 주변부국가에서 중심-주변의 공간적 권력구조화는 중심부 국가들의 영향력—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영향력—과 주변부 국가의 중심인 중앙의 이해관계—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작용하여 이루어진다. 중심부국가의 중심과 주변부국가의 중심 간의 교류는 활발하며, 주로 세계도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세계도시를 둘러싼 일부지역이 중심부를 형성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주변부화된다. 세계도시 자체도 이중 도시화된다. 주변부에도 역시 중심과 주변의 권력관계가 구축된다. 지방의 중심부는 중앙과 정치적, 경제적 후원관계를 맺음으로써 지역의 지배 권력을 안정화한다(김경동·안청시, 1985; 안청시·김만흠, 1995). 중심-주변의 공간권력구조는 중층결정적(over-determinative)이기 때문에, 일단 고착되면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타자화의 정도는 세계 중심부와의 ‘거리(distance)’—공간적 거리와 사회심리적 거리—와 비례관계에 있다.

IV. 지방생산 모형: 타자화와 중심부-주변부 권력관계 구조화 논리의 통합

이상에서 우리는 지배단위에 의한 피지배단위의 단선적 타자화에 피지배단위 자신에 의한 자기 타자화를 포함하는 ‘이중적 타자화(double othering)’의 논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일국 내 지역간의 중심부-주변부 권력관계의 구조화를 설명하기 위한 내부식민지론에 지구화 요인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간의 ‘반복적(recursive) 중심부-주변부 권력관계의 구조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제 “지방은 무엇으로, 어떻게 생산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상에서 논의한 타자화의 논리와 중심부-주변부 권력관계의 구조화 논리를 하나의 통합모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보자. 두 개의 논리를 통합하는데 있어서 대전제는 ‘지방의 생산’은 물질적인 차원과 정신적인 차원이 동시에 고려될 때, 총체적인 해석의 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미시적이기보다는 거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접근에 한계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큰 틀로 전제하고 작은 부분들을 미시적으로 해석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논자에 따라 융통성 있는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먼저 <그림 2>의 지방생산의 통합모형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첨가하고자 한다.

<그림 2> 지방생산 모형



중앙과 지방은 지역들에 대한 행정적인 역할 규정을 통해서 분류된 공간적 개념이다. 이렇게 규정된 공간들은 일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책들과 지구화의 압력에 의해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권력관계로 구조화된다. 그런데 그러한 중심부와 주변부 안에는 마치 상자 안에 상자가 들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중심부와 주변부의 공간적 권력관계가 구조화된다. 따라서 중앙은 중심중심부-중심주변부의 권력관계로, 지방은 주변중심부-주변주변부의 권력관계로 구조화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국의 공간은 권력관계로 계층화된다. 공간 계층화를 가져오는 정책들은 중심부의 정치경제적 우위성—의사결정권의 격차—에 의해 더욱더 강화된다. 여기에 덧붙여 세계적인 차원에서 흐르고 있는 산업·금융자본은 세계 공간적으로 적절한 매개 지점을 구축하게 되는데, 그것이 세계도시이다. 세계도시는 대체로 중앙의 중심부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이것은 일국적 차원의 정책에 의한 자율적 공간화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지구화의 압력은 공간적 권력관계의 구조를 보다 강고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국의 중심부-주변부 권력관계는 다시 세계적 차원에서 중심부-주변부 권력관계와 밀접하게 연계된다. 따라서 주변부에 가까운 국가들의 경우 공간적 권력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자율적 해결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된다.

세계적 차원, 일국적 차원,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권력관계의 계층화는 다시 정신적인 차원에서 정당화되고 보다 강화된다. 여기가 타자화 논리의 접합 지점이다. 타자화 과정을 통해서 지방이 열등한 존재로 인식된다. 즉, 주변부로서의 지방은 열등한 존재로 본질화되고 등질화된다. ‘본질화’는 지방이 본래부터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인식되는 과정, 혹은 이미지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지방이 권력관계 속에서 열등하게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래부터 열등했기 때문에 권력관계 속에서 주변부화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정당화된다(전봉철, 2004). 그리고 ‘등질화’는 지방이 그 속성상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지방‘들’의 집합적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중앙과의 관계에서는 ‘무차별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과정, 혹은 이미지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개성 있는 지방들은 주변부로서의 동질성을 가지며, 개성은 사상된다. ‘열등한 존재’로서 지방의 본질화와 등질화는 지방과 관련된 속담이나 금언과 같은 민간담론(folk discourse)에서부터 정책담론(policy discourse)이나 이론, 소설, 영화, 메스컴 등에서 생산, 유포되는 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담론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은 중앙을 표준으로 하여 지방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한다. 이렇게 타자화는 이중적으로 전개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타자로서의 지방은 지속적으로 재생산된다.

정치경제학적으로 중앙과 지방이 중심부-주변부의 권력관계로 구조화되는 과정과 지방이 열등한 존재로서 타자화되는 과정을 통합한 지방생산모형은 물질적·정신적 차원에서 지방이 생산되는 메커니즘을 해석하기 위한 틀로서 구성된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통합모형

이 한국사회의 지방이 처한 위기를 해석하는데 활용 가능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V. 지방생산모형에 근거한 한국사회의 지방읽기 가능성 탐색

이 글은 타자화와 중심부-주변부의 권력관계 구조화의 통합을 통해 지방생산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시론적인 논의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지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의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지방생산의 통합모형이 한국사회의 지방을 읽는데 적실성을 갖는가? 특히 지방의 위기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는데 적절할까? 만약 지방생산모형에 근거해서 지방을 연구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에 대해 탐색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로, 지방생산의 통합모형에 의해 한국사회의 지방을 읽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보자. 행정학계에서 구성된 지방담론에서는 지방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열악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경우가 매우 일반화되어 있지만, 이 글에서 소개한 타자화나 내부식민지론의 논리가 적용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사회의 영남과 호남간의 지역갈등을 다룬 황태연(1997a; 1997b)의 연구가 내부식민지론에 의존한 드문 연구에 해당된다. 그에 따르면, 영남과 호남의 갈등은 박정희 정권의 발전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균등발전 논리에 따라 소수 기업과 영남 지역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영호남간의 지역격차를 구조화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박정권은 영남을 정치적 근거지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호남을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소외시키는 전략을 전개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영남출신의 엘리트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당연한 결과로 영남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자원배분이 구조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황태연의 분석에 따르면, 영남과 호남이 중심부와 주변부의 권력관계로 고착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황태연의 분석은 여전히 유효한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김대중 정부 이후 현재까지 영남과 호남의 지역갈등의 '관성'은 아직 남아있으나, 황태연의 분석이 이루어질 당시의 긴장감은 많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영남과 호남을 중심부와 주변부로 전제하는 분석은 유효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영남과 호남의 지역갈등 구도가 약화되면서 그 동안 보이지 않았던 다른 차원의 공간적 대립구도가 드러나게 되었다. 지방분권운동이나 노무현정부의 지방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격차'에서 정당성을 찾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앙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의미하며, 지방은 그 이외의 지역을 의미한다. 중앙과 지

방의 정치경제학적 지표들은 비록 기초적인 자료이기는 하지만, 중앙과 지방이 중심부와 주변부의 공간적 권력관계로 구조화되고 있는 경향성을 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수도권 집중도를 살펴보면, 수도권은 국토면적이 전국의 11.8%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47.2%(2002년 기준)가 집중되어 있다. 주요기관의 집중도를 보면, 정부 중앙부처는 100%, 기타 공공기관은 84%, 100대 대기업 본사 91%, 벤처기업 77%, 기업부설연구소 72.1%, 10대 명문대 80%가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경제력의 집중도를 보면, 총량경제력의 52.6%, 금융거래비중 70.4%, 조세수입비중 70.9%가 집중되어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이상의 지표들은 수도권집중도가 과도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화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정책의 모호성, 수도권의 정치적 저항, 국내외자본의 경제적 압력, 세계도시로서의 서울의 기득권 등등으로 그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사회의 지방은 열등한 존재로 본질화되고 등질화될 수 있는 가능성, 즉 타자화의 물적 토대가 구조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지방 문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 지방생산모형은 적절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둘째로, 행정학 분야에서 지방생산모형에 기초한 연구의 방법을 생각해보자. 열등한 존재로 지방이 생산되는 과정은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정책과정의 분석이나 정책담론에 대한 연구를 모두 포함한다. 먼저 정책과정의 분석을 통해서 중앙이나 지방과 관련된 정책들—대표적으로 국가발전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자료들은 의사결정권의 격차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령 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조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고자 한다면, 정책관련 당사자들, 특히 수도권의 입장이나 정치적 압력—예를 들어,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대응이나 수도권규제에 대한 수도권의 대응—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의사결정권의 격차를 규명하는데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담론 분석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정책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권력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것은 타자화 과정을 해명하는데 적절한 도움을 줄 것이다. 표준어정책을 예로 들어보자. 1988년 문교부가 고시한 표준어규정(문교부 고시 88-2호)의 총칙 제1항을 보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계층적 차원에서 ‘교양 있는 사람’, 시간적 관습적 차원에서 ‘현대’, 그리고 공간적 차원에서 ‘서울’을 명시하고 있다. 표준어 정책에서 규정된 표준어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중앙과 지방에 대한 상호대립적인 관점을 만들어나간다. 서울과 지방은 교양과 무교양, 현대와 전근대/봉건, 표준과 일탈의 우열관계로 이미지화된다. 물론 이러한 표준어정책이 중앙과 지방을 우열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언어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

하게 된다. 가령 한국의 언어정책은 표준어정책으로 대표되고 있는 반면, 지방어를 포함한 한국어 일반을 위한 언어정책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행정학에서의 담론분석은 지방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담론들—사회문화정책, 개발정책, 관광정책, 복지정책, 환경정책 등등—에서 지방이 타자로 생산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VI. 결 론

이 글은 “지방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지방은 무엇으로, 어떻게 생산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열등한 존재로서 지방이 생산되는 메커니즘을 이론화하기 위해 타자화 논리와 내부식민지론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지방생산모형은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민감성을 자극한다. 물론 권력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문제들을 가져오거나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지방의 문제는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될 때, 특히 권력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시론적으로 지방생산모형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 모형에 의존해서 한국사회의 지방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론화를 위한 논의의 행간에 한국사회의 지방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관여가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도권 기형적인 비대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사회에서 지방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읽기 위한 한국적 이론의 모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

【참고문헌】

- 강영안.(2005).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 강현수.(1995). 대도시 경제재구조화에 관한 이론적 동향. 「도시연구」, 1(1): 217-240.
- 강현수·최병두.(2003). 탈포드주의적 경제발전과 새로운 도시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4): 505-518.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망」.
- 김경동·안청시 외.(1985).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광억.(1996). 지방의 생산과 그 정치적 이용. 「한국문화인류학」, 29(1): 3-35.
- 김상구.(2005). ‘지방정부’에 관한 연구경향과 전망: 《지방정부연구》에 게재된 논문 (1997-2003)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1(1): 291-317.
- 김연숙.(2001). 「레비나스 타자윤리학」, 서울: 인간사랑.
- 김천영.(2006). 관계의 관점에서 본 국가균형발전: 분권과 자율의 논리 비판을 중심으로. 「2005년 강원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논문집: 중앙과 지방에 대한 성찰」. 1-19.
- 藤田弘夫.(1995). 「도시의 논리」, 이정형(역). 서울: 도서출판국제.
- 박찬부.(2001). 상징질서, 이데올로기, 그리고 주체의 문제: 라캉과 알튀세르. 「영어영문학」, 47(1): 63-85.
- 안청시·김만흠.(1995). 지역사회 민주화와 삶의 질: 지역간 비교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7(2).
- 이병렬·박기관.(2002). 한국 지방자치학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기고논문(1989-2001)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1): 23-42.
- 이익섭.(1983). 한국어 표준어의 제문제. 「한국어문의 제문제」. 서울: 일지사.
- 이중수.(2002). 「지방정부이론: 이론화를 위한 비교론적 분석」. 서울: 박영사.
- 이종열·이재호.(2002). 한국의 중앙과 지방간 관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14(4): 845-865.
- 임의영.(2006). 「행정철학」. 서울: 대영문화사.
- 전봉철.(2004). 차이의 공간화와 타자의 정치학. 김상구 외, 「타자의 타자성과 그 담론적 전략들」.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 황태연.(1997a). 내부식민지와 저항적 지역주의. 「한독사회과학논총」, 7: 11-35.
- 황태연.(1997b). 내부식민지의 저항과 지역의 정치화: 서구와 한국의 지역문제, 이론, 권력전략. 「한국정치학회기획학술회의-지역패권과 지역갈등」.
- Brewer, A.(1984). 「제국주의와 신제국주의: 마르크스에서 아민까지」, 엄홍철(역). 서울: 사계

- 절;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A Critical Surve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1.
- Chilcote, R.H. & Edelstein, J.C.(1980). 발전에 대한 두 시각. 엄홍철(편저), 「제3세계와 종속 이론」, 29-127; *Latin America: The Struggle with Dependency and Beyond*. Schenkman Publishing Company, Inc., 1974.
- Decombes, V.(1990). 「동일자와 철학: 현대프랑스철학(1933-1978)」, 박성창(역). 서울: 인간사랑.
- Foster, J.B.(2003). The New Age of Imperialism. *Monthly Review*, 55(3): 1-14.
- Frank, Andre G.(1967). *Capitalism and Underdevelopment in Latin America: Historical Studies of Chile and Brazil*.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Frank, Andre G.(1980). 「저발전의 개발: 제 3세계의 경제와 종속 그리고 빈곤의 원리」, 최완규(역). 서울: 새밭.
- Hechter, M.(1999). *Internal Colonialism: The Celtic Fringe in British National Development*. New Brunswick &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 Hegel, G.W.F.(1983). 「정신현상학 I, II」, 임석진(역). 서울: 분도출판사.
- Kojeve, A.(1981). 「역사와 현실의 변증법: 헤겔 철학의 현대적 접근」, 설현영(역). 서울: 한빛.
- Lacan, J.(1949). *The Mirror Stage as Formative of Function of the I as Revealed in Psychoanalytic Experience*. *Ecrits*. trans. and selected by Alan Sheridan. Tavistock Publications, 1977:1-7.
- Lefebvre, H.(1991). *The Production of Space*, trans. by D. Nicholson-Smith. Blackwell Publishing.
- Magdof, H.(1982). 「제국주의시대」, 김정기(역). 서울: 풀빛; *The Age of Imperialism: The Economic of U.S. Foreign Policy*.
- Robertson, Roland.(1992).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Newbury Park/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Rose, Gideon.(2003).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American Capitalism? *The National Interest*. 71: 131-135.
- Sassen, Saskia.(2000). Territory and Territoriality in the Global Economy. *International Sociology*. 15(2): 372-393.
- Wallerstein, I.(2005). 「세계체제분석」, 이광근(역). 서울: 당대; *World System Anaysis: An Introduction*.
- Widmer, Peter(1998). 「욕망의 전복: 자크 라캉 또는 제2의 정신분석학 혁명」, 홍준기·이승미(역). 서울: 한울.

Wright, D.S.(1988).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Monterey, California: Brooks/Cole.

<http://www.etymonline.com/index.php?search=region&searchmode=none>

<http://www.etymonline.com/index.php?search=province&searchmode=none>

<http://www.etymonline.com/index.php?search=local&searchmode=none>